시 론

미래의 나를 만나러 가는 날

박 남 기
광주교대 교수

30년 후 미래의 나를 만났다. 구순을 바라볼 때까지만 해도 입으로는 얼른 죽고 싶다고 했지만, 건강하게 살다가 한 사나흘 아프고 잠자던 중에 꿈길처럼 떠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지. 구순을 넘고 나니 맛있는 것도, 재미있는 것도 모두 사라져 그만 살고 싶다. 오는 것이 내 뜻이 아니었듯, 가는 것도 내 뜻이 아님을 알기에 부르면 언제든 떠날 수 있게 채비만 해두었다. 수의도 마련하고 장례비도 저금해놓고 아이들에게 남길 유언도 써 두었다. 열네 식구까지 살던 큰 집에서 혼자 지내며 앞뒤 마당 텃밭 농사지어 자식들에게 보내는 것을 낙으로 삼았지.

내가 걷지 못하면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아이의 말을 명심하며 싫고 힘들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저녁으로 동네를 두 바퀴씩 돌았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몸이 멈춰 섰어. 아이 친구인 의사가 내 자율신경계가 망가졌다고 했다. 그리되니 아이의 말대로 아무도 나를 원치 않았다.

천정만 바라보며 요양원에 누워 지낸 지 어언 1년 반이 흘렀다. 처음에는 정신이 혼미하여 잘 몰랐으나 정신이 어느 정도 또렷해지니 사는 것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졌다. 한 번 가면 죽어야 나온다는 요양원에 나를 버리고 간 자식들이 야속했다. 평생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끝이 이것인가 하는 생각에 모든 것이 쓸데없다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다. 어느 날 아이가 손을 잡으며 따스하게 한 마디 건넸다. "생의 마지막에 쓸 데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힘들게 살아왔지만 돌아보면 재미있던 날들도 있었지요? 자식 농사도 잘 지으셨지요. 남면 사람 중에서 처음으로 미국 여행 다녀오시고, 팔도강산 안 가본 곳 없이 자식과 함께 여행도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래, 맞아. 튤립이 예쁘게 피어있던 미국 백악관, 큰 다람쥐가 다가와 음식을 달라던 나이아가라 폭포 공원과 폭포에서 탔던 배, 미국 공원에서 구워 먹던 맛있는 불고기 모두 생각난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 장면이 나오면 어제 일인 양 기억이 또렷했지. 눈 내리던 날 설악산에서 네 아버지와 함께 탔던 케이블카도 기억나."

어느 날 걸어볼 요량으로 요양사들에게 도움을 부탁했는데 아예 일어설 수가 없어서 포기했다. 행여 낙상할까 봐 자꾸 나가고자 하는 나를 한동안 묶어놓기까지 했다. 계속 누워만 있다가 보니 엉덩이 근육이 사라져 이제는 앉아 있는 것도 힘들다.

하나 있던 동생도, 함께 살아왔던 마을 친구들도 모두 떠나고 이젠 홀로 남았다. 무학에 한이 맺혀 시작했던 글공부도, 늘 끼고 지내던 텔레비전도, 그리 좋아하던 노래도 모두 싫어 보지도 듣지도 않은 채 침상에 하염없이 누워있다. 눈을 뜨면 어지러워 아예 눈을 감고 지낸다.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다.

내 아이들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것이 삶의 유일한 희망이다. 어제는 아이에게 웃으며 이야기해 주었다. "한 세상 참 재미나게 살았다. 고맙다." 아이도 말을 건넸다. "가시면 그리도 그리워하시던 외할머니가 활짝 웃으며 반기실 거예요. 저희도 곧 따라갈게요. 마음 편히 잡수세요." 백발의 아이가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니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흐른다.

"미래의 너는 멀리 있는 게 아니란다. 네 곁에서 너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어. 그를 만나 함께 하며 추억을 나누는 시간들을 아까워하지 말렴. 그리하면 오늘 이 순간을 감사하게 될 거야. 물론 미래의 너도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제 어머니가 떠날 채비를 하시는 것 같다. 요양원에 누워 계시는 어머니를 뵈러 가는 날은 30년 후의 나를 만나러 가는 날이다. 돌아올 때면 생각한다. 어찌하면 미래의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보람을 느끼고, 모두에게 감사하며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생의 마지막에 후회를 조금이라도 덜 하게 할 수 있을까? 어머니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 걱정이시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냐?"

문화난장

글쓰기는 인문학적 사유

이 현
아동문학가

"니 장미를 그르케 특벨허게 맨들어 준 건 니가 니 장미헌티 들인 시간이여." "넌 이거 까먹어 버림 못 쓴다잉. 니가 질들인 거엔 항시로 책임을 져야 되는 벱이여. 넌 니 장미를 책임져야 된다 그 말이여…."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에게 삶에 대한 본질과 철학적 성찰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을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는 찰나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또 다른 해석과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갱상도 사투리 번역판 '애린 왕자'에 이어, 조부모의 발화와 임실과 남원에서 방언 조사 한 것을 바탕으로 번역했다는 심재홍의 전라북도 사투리 번역판 '에린 왕자'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찰지게 밀려드는 땃땃헌 정감과 함께 조곤조곤 나에게 말 건네는 것 같았다. '그랑께 말이여…. 난 뭣을 책임져야 할까이….' 내 삶의 무게를 되돌아보며 읊조리게 되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한때는 철학을 꿈꾸기도 했었다. 공자, 맹자, 데카르트, 소크라테스를 만나며 끝없이 쌓아 올린 물음표와 느낌표 안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서고 싶었다. 나는 무엇을 생각함으로 존재할 것인가, 나는 진정 무엇을 알고 있으며, 내 안의 나를 알기 위해 나는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접하면 접할수록 모호해지는 생각들을 명확하게 파헤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나만의 논리로 규정지어 외치고도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없었고, 눈에 보이지 않은 그 무엇들을 바탕으로 나는 또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 수 없어 철학을 향한 꿈을 접었었다.

삶 너머 인문학, 명상 인문학, 치유 인문학, 공존 인문학, 인문 고전 인문학, 트로트 인문학 등. 언제부턴가 인문학이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이 제목만큼이나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인문학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 사람 냄새 풀풀 나게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생각하는 만큼, 우리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따스한 바탕이 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딱히 이유도 알 수 없는 일상에서의 불안감, 결핍, 외로움에 대한 쉼, 숨 고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인문학적 사유, 글쓰기"

얼마 전 간호학과 학생들과의 만남을 앞두고 생각이 많아졌다. '의사소통 능력향상 특강, 글쓰기 영역'으로 진행될 시간인 만큼 자꾸만 '글쓰기'에 대해 무게가 주어졌다. 취업을 생각해, 자기소개서 잘 쓰는 법을 해볼까, 환자와의 공감 능력을 키우는 글쓰기를 해볼까, 아니면 글의 장르와 구성을 시작으로 주제와 소재를 중심으로 하는 글쓰기를 해볼까, 한참을 고민하다 생각이 번쩍, 고개가 끄덕여졌다. 결국은 글쓰기의 기본, 글쓰기의 바탕인, 인문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 글쓰기였다. 자기소개서 잘 쓰기도 환자와의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한 글쓰기도 글의 주제와 소재 찾기도, 서로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의 마음을 귀히 여기는 사랑이었다. 내 안의 나를 바탕으로, 서로의 마음에 말 건네는 소통이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며 사람 냄새 풀풀 나게 하는, '인문학적 사유, 글쓰기'였다.

"내 비밀은 이거여. 겁나게 간단헌 거다잉. 맴:으로 볼 적에만 지대로 볼 수 있는 법이여잉. 중요헌 건 눈에 안 뵈아." "중요헌 건 눈에 안 뵈아." 에린 왕자가 까먹덜 않을라고 따라혔어.

열심히 살아온 2024년을 보내며, "암만, 중요헌 건 눈에 안 뵈아." 내 안의 중요함을 찾아 다독이며 사랑 한 스푼, 그래그래 잘 살았다 응원 한 스푼, 살포시 올리며 미소 짓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다.

독자투고

청소년 사이버도박 범죄 근절해야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도박 범죄가 기승이다. 지난 해 도박 혐의로 형사입건된 소년범은 171명으로, 2022년(74명)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이며, 그 중 사이버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으며, 9살 초등학생도 포함돼 있다.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는 이유는 '접근성'에 있다. 기술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대중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도박이나 사행성 게임에 접근이 쉬워졌다. 자극적이고 흥미를 유발하는 문구를 여러 사이트나 SNS에 노출시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불법사이트는 성인인증 등 제한이 없어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더욱 쉽다.

특히 대부분의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가지게 된 요즘, 스마트폰을 통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적은 돈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한 번이라도 도박을 통해 돈을 얻게 되면, 그때의 기억을 잊지 못해 계속해서 도박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친구와 지인을 통해, 혹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일부 청소년들에게 도박 자체가 '문화'로 형성돼 도박을 하지 않으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생각해 도박을 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청소년에게 사이버도박은 단순 게임이 아닌 범죄임을 인식시켜 처벌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 경각심을 가지게 해야한다. 둘째, 가정에서 자녀의 일상생활에 변화가 있다면 주의 깊게 소통해 자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해야한다. 셋째, 친구를 통해 접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학교에서의 예방 교육도 중요하다.

도박은 한 번 빠지게 되면 늪에서 벗어나기 힘든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누군가 도박을 권유하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주변에 도박을 하는 친구를 발견하면 선생님이나 112에 신고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1336)에 연락해 상담 및 치료를 받게 해야한다.

도박에 인생을 걸지 않도록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 학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신강호·장흥경찰서 경무계〉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계엄령의 상징 옛 전남도청 보도검열관실 복원돼야

전두환 신군부는 1979년 12월12일 불법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 박정희 대통령 시해 10·26 사건으로 발령된 계엄령을 1980년 5월17일 전국으로 확대하며 언론 통제를 강화했다. 당시 계엄사령부 전남·북 계엄분소도 전남도청에 '보도검열단'을 운영했으며 다음해 1월24일 계엄 해제 때까지 신문·방송·잡지 등 모든 매체 기사를 검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 선포한 비상계엄 제1호 포고령에도 45년 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언론과 출판은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자에 대해선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처단한다고 살벌한 표현까지 명시했다.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행태가 재차 현실화할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무장한 계엄군의 봉쇄를 뚫고 긴박하게 소집된 국회가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계엄 사태는 155분만에 막을 내렸다.

1980년 당시 검열관실은 강압적이고 부당한 공권력의 현장이었다. 소령과 위관급 장교, 보안대 상사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국가 안보에 관한 부분을 확인한다면서도 관련 없는 시위 등에 대해서도 무자비하게 기사의 축소·삭제를 지시하는 등 여론을 철저 왜곡했다. 사실과 다른 보도에 광주시민들은 더욱 분노했으며, 계엄군의 폭력, 학살에 맞서 거대한 민중항쟁으로 불길이 타올랐다.

광주·전남언론인회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옛 도청 별관 2층 검열관실 복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습대책위원회와 기동타격대, 상황실 등과 함께 민주주의를 체감하는 장소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당초 문화체육관광부 추진단 사업에는 빠졌다가 지난 9월 콘텐츠 설명회 때도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연내에 수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데 보도검열관실을 되살려야 한다. 언론인회는 전국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게시해 폐해를 낱낱이 국민에게 보여주겠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를 부른 12·3 비상계엄 사태의 언론 보도물까지 전시해야 한다. 후대에 역사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적합한 공간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전남 잇단 고병원성 AI, 또 다시 '수상한 겨울'

전남 영암군 소재 가정형 가금농가에서 올해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첫 확진 사례가 나온 데 이어 강진군 육용오리 사육농장에서도 H5N1형이 확인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불과 일 주일 사이다. 전남도는 감염축 조기 색출을 위해 강진군 해당 농가와 같은 장흥군 소재 오리 육가공 업체 다솔계열 98호를 신속히 검사하고 있다.

아울러 고위험지역 오리농가 사육제한 등 확산 차단에 전력하고 있다. 농장 간 사육 밀집도 완화 및 전파 차단을 위해 12개 시·군 117호에 대해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제한하도록 했다. 고병원성 AI는 전남 2건을 비롯해 강원·충북·충남·인천·세종 각 1건 등 전국적으로 모두 7건이 발생했다. 전남도는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상황이다.

다시 '수상한 겨울'을 맞았다. 소 럼피스킨도 충북 보은 한우농장에서 22번째 발생이 확인됐다. 해마다 연례행사로 되풀이되고 있더라도 민관이 합심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 가금농장에서는 출입 통제와 소독,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 갈아신기, 의심축 발견 시 가까운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고정식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 진입 금지 등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주요 증상뿐만 아니라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녹색 설사) 등 경미한 경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전남도는 방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한다. 농가 스스로도 기본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 물론 위반 시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필요가 있다. 선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일상화되는 가축 전염병에 대응해야 한다.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한편으로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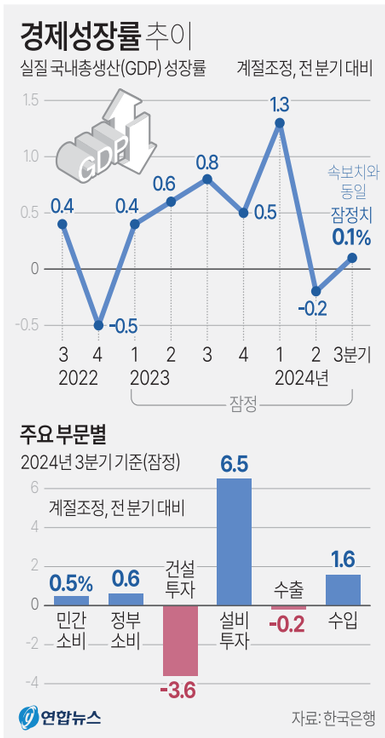
그래픽 뉴스

국내 3분기 경제 성장률 0.1%…수출 0.2% 뒷걸음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전 분기보다 0.1% 성장하는 데 그쳤다. 2분기 역성장(-0.2%) 이후 한 분기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성장을 이끌던 수출마저 뒷걸음치면서 반등 폭이 한은의 8월 전망치(0.5%)나 시장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한은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잠정치)이 0.1%로 집계됐다고 5일 발표했다. 앞서 분기 성장률은 2023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다섯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조를 유지하다가, 1.3%에 이르는 1분기 성장률의 기저 효과 등 탓에 2분기에는 -0.2%까지 추락했다. 3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자동차·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2% 감소했다. 건설투자도 건물 건설 중심으로 3.6%나 줄었다.

반대로 수입은 기계·장비 등을 위주로 1.6% 증가했고, 민간소비도 전기·가스·승용차 등 재화와 의료·운송 등 서비스 부문에서 모두 늘면서 0.5% 성장했다.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 제조용장비 등 기계류와 항공기 등 운송장비 중심으로 6.5% 증가했다. 정부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등 사회보장 현물수혜 등의 영향으로 0.6% 늘었다. 3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직전 분기보다 0.5% 감소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